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4년 9월 21일 (제76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02)533-9191 Fax.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032)763-9191 Fax.032)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물과 물고기에게 배우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며 면류관들이여! 난 기도하네. 꿈이 있는 당신들의 삶이 아름답고 존경받기 위해!

여보게! 나는 우리 삶속에서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거란 걸 알았네. 왜냐면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실행치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을 잃는 거야. 얻으려면 쉬운 것부터 실행하게.

자네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 부족이라, 또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것임을 알았을 걸세. 쉽잖아? 깊이 생각해보게.

또한 우리의 삶은 함께이지 홀로가 아냐. 상대에게 배려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야. 이것은 꿀을 따다 주는 벌이 많은 것과 같으니 어찌 달콤한 삶, 즐거운 삶이 아니겠나! 꿀을 따오는 꿀 벌통을 발로 차지 말게. 이것 역시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네.

여보게!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 되면 어디가나 뽕뽕하고 당당하네. 이것이 사랑의 정의야. 이 사랑 속에서 평화란 동지와 함께 자유를 만끽하면 성공하지. 다 아는 거야. 그러나 알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 아인슈타인이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신병자와 무엇이 다르냐고 했던가? 나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2:26).

여보게! 또한 자네에겐 죽마고우(竹馬故友)보다 급난지붕(急難之朋)을 더욱 많이 두고, 어수지교(魚水之交) 하게. 물고기와 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많아야 즐겁고 행복한 속에 자유를 노래하며 사랑을 만끽한단지? 여보게! ‘사랑=진실’, 이 공식을 잊지 말게. 그리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잠 11:30~31),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는 이 말씀을 늘 심비에 새기게.

독일에서 朋友 이초석



평화는 사랑과 인내의 자녀다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후원하는 ‘9·8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시청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원래 5월 20일에 계획되었던 성회였으나 온 나라를 뒤흔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연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추석 명절에 정말 남북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시청광장으로 불러 모으셨다. 5개월 넘게 이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성회였기에 이 날의 감격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휴전상태가 계속된 지 어언 60년이 넘었지만, 한반도에

울시청광장에서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목사님은 이 날, 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회중을 향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보다 먼저 영혼구원이요, 하늘나라의 확장임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는 말씀에 의지하여 평화는 사랑과 인내가 낳는 자녀이며, 사랑 속에만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만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셨다. 비록 고

며 이 성회를 위해 기도해왔다. 또한 9월 8일로 날짜가 확정된 후로 전단지, 현수막, 물티슈, 티셔츠 등 각종 홍보용품 및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우리 성도들은 전국 각지에서 전도의 열정을 불살랐다. 또한 특별순서로 공연을 준비한 팀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이날 성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통역을 담당하며, 안내를 담당하고, 피약별 아래 광장을 누비며 영상 및 사진촬영에 헌신한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성회 전날 밤을 온전히 지새우며 단상을 꾸미고, 성회를 마친 후에도 끝까지 남아 단상 해체작업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다한 성도들이 있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도성회(2014. 9. 8)

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의 정착이 요원해 보이는 이때, 이 나라는 이념으로 갈리고,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으로 갈려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의 봉합봉을 드는 것은 단지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분은 지금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기도하는 것만이 이 땅에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대한민국 심장부 서

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세만이 남북의 모든 갈등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분출되고 있는 많은 갈등과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다. 강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있는 자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60년 만의 초고속 성장과 함께 주신 자유와 물질적 풍요는 바로 그것으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라는 뜻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하셨다.

돌이켜보면 지난 3월 24일, 처음으로 시청 앞에 모여 기도를 시작한 이래, 매주 시청광장에서부터 남산까지 순례하

다. 정말 하나하나 그들의 수고가 무엇하나 값지지 않은 것이 없는 감동이 하루였다.

화창한 날씨와 선선한 바람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분명 평화통일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 뜨거운 햇볕을 마다않고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감동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한 것처럼 꿈을 꾸는 듯 평화통일의 역사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한은백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베네수엘라 집회

9월 14일(일) ~ 9월 26일(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2:14)



사랑이라는 어머니 품에 평화가 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사랑이 무어나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옛 유행가입니다. 저는 이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희생은 눈물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랑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이 사랑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배려하게 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면 상대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기업에서, 사회 안에서,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조금 양보하고, 우리 기업을 위해 내가 조금 참고, 사회를 위해 내가 불의를 행치 않으며, 교회를 위해 내가 무례히 행치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결국 평화라는 자식을 낳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정이 시끄럽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함인데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사랑의 결핍

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만 좋은 게 아니라 사주가 더 좋습니다. 왜요?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요. 결국 직원을 사랑해주는 것은 사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지러워보세요. 누가 힘들니까? 내가 힘들니다.

사지가 병들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장육부에 병이 나면 몸이 주저앉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외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도 내 부에 있다.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기업과 기업, 노사가 싸우면 이 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잠17:14). 그러니 싸움을 그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분명히 이 나라의 평화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마12:25).

지난 8일, 우리는 서울시청광장에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서울시청광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제가 베푼 가슴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어머니 품에서 평화라는 자식이 나온다.’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북한정권은 정말 악하고, 엉뚱하기 그지없고, 막

무가내이고, 무슨 짓을 할 지, 어디로 뿔지 모르는 상대입니다. 말조차도 통하지 않는 상대입니다. 그래도 단절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돈을 쥐서 무기를 사게 하면 안 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계속해야 합니다. 정말 속상하죠. 먹을 것 넘겨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니 정말 밉죠.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정말 통하지 않지만, 이 통할 것 같지 않는 이 사랑이 반드시 때가 되면 평화라는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임신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더욱이 해산하려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

평화를 낳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우리만 사랑을 해야 합니까? 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힘 있는 자, 가진 자, 높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왜요? 평화를 낳기 위해서 말입니다. 세상에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교훈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겠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죽이려는 자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한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친북성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

만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사랑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인도할 것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듯 머잖아 통일은 옵니다. 무력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 곧 옵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보내는 것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입니다.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어머니 품에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은 연약해보이지만, 핵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칼은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을 부르지만,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까닭입니다. 죄만 짓는 인간들, 악행을 일삼는 인간들을 때리고 끌어버릴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도 사랑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자녀를 얻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여러분! 이번 서울시청광장의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통해 우리 교단과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교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 교단은 더욱 부흥 발전할 것이고, 하나로 뽕뽕 뭉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쇠는 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굳어진 마음도, 휴전선도 이 사랑이라는 열쇠만 있으면 다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합시다. 평화를 낳을 때까지.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기적은 머리수에 좌우되지 않는다!

AD 5세기 경 유럽, 야만족들의 침략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던 피난민들은 아드리아해의 척박한 바닷가에까지 내몰렸다.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기에 그들은 갯벌에 발뚎을 박아 자신들의 터전을 만들었다. 그러다 그것이 점차 발전하더니 나중엔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되었다. 바로 '베네치아공화국'의 시작이었다.

인구라고 해봐야 18만에 불과한, 땅과 자원도 부족했던 이 작은 도시국가는 그러나 무려 1천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다. 아니 주위 열강의 눈치나 살피며 조심조심 숨죽이며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 당신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터키와 맞서 싸워 모두 여덟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 끈질긴 생명력과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바다의 도시 이야기'에서 저자는 그들의 개척정신과 참여정신, 그리고 현장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것이 국가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으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이 탄탄한 초석 위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었던 것이다.

지난 9월 8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치러진 '평화통일 기도성회'에서 필자가 느낀 감동과 충격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그 영광의 역사를 겹쳐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작지만 하나 된, 그리고 더 없이 열정적인

그들과 오늘 예수중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흠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라는 점, 모두에게 공개된 광활한 서울광장이라는 점, 변덕스러운 가을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과 세월호 사태와 유병언 일가 도피 사건으로 전 국민의 정신적 괴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 등은 더 이상 우리 앞에 장애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의 봉화를 피워 올리고, 이를 위해 남녀노소, 너와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참여한 결과를 우리 모두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생생히 목도할 수 있었다. 정말로 거룩한 목표 앞에서 편안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노력했더니 만물이 기적으로 화답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위대한 역사에는 희생이 따른다. 어찌 60여 년 동안 남과 북을 가로지르던 철의 장벽이 단 한 번의 망치질로 무너질 수 있으랴!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우리를 통해 잡자는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 하신다. 주께서 민족의 평화통일과 세계 선교의 디딤돌로 우리 예수중심을 주목하고 계심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시간 속에 잊혀져 가는 다수가 되기보다 역사 속에 기억되는 소수가 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복 받은 세대

'3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해서 요즘 20, 30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덟 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십 대가 되면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이 옛날엔 당연한 일이였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취업하는 것부터가 전쟁인 젊은 세대들에겐 돈이 들어가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육아는 포기의 대상이 되었지요.

어른들 보기엔 그저 젊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나 행복해'가 아니라 '나 불행해'일 겁니다. 그런데 9월 8일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 예배를 드리다가 놀랍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3포 세대'가 아니라 세 가지 복을 받은 '3복 세대'구나.

그것이 어떤 복이냐고요? 첫 번째는 전쟁을 겪지 않은 복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일제시대와 6·25를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끔 외할머니는 일본말로 노래를 부르시는데 다 일제시대 때 배운 노래지요. 우리 땅에서 우리말이 금지되던 시대를 사셨

고, 해방 이후엔 기뻐할 새도 없이 6·25 전쟁으로 가족을 잃으셨습니다. 150cm도 안 되는 작은 키로 그 잔인한 역사를 살아내셨다는 게 저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겪지 않은 것, 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두 번째는 전쟁이 남긴 배고픔을 겪지 않은 복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광복 후에, 어머니는 6·25 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배고프던 때였고, 여가생활이라던가 자기계발이라는 말은 삶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오직 먹고 사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그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돈 없다 해도 그때만 할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되었을 텐데, 하고요. 우리는 부모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안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갈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있지요. 때론 직장 상사가 교회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친구에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지만,



임하는 날이었습니. 그런데 예배 전에 허름하고 냄새나는 거지 하나가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오직 3명만이 그에게 응대해줬을 뿐이었습니다.

그 거지가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가장 앞자리에 앉자 사람들이 와서 뒤로 가라고 끌어내어 그 거지는 하는 수 없이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 장로님이 나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목사님은 예레미야 스테피크 씨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주시요." 모든 성도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치며 강대상을 쳐다봤지만, 목사님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대신 냄새나는 그 거지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성도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성경을 펼칩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약 1만 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날은 이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34~40).

그리고 목사님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모두들 부끄러움에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성경말씀이 불현듯 생각납니다.(히13:2).

예수중심원집실



귀를 기울이세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한자성어다.

이번 추석날 서울시청광장에서 있었던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바로 진인사대천명을 이룬 케이스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성회를 위해 정말 열심이 뛰었다. 힘에 겹도록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였다. 구역마다, 각 단체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회를 홍보했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특별공연을 준비하느라 밤을 샜다. 또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교회에서 버스를 대어하여 집회에 참석했다. 전라도, 경상도, 더는 제주도요, 일본에서, 미국과 중국에서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했다. 모두 자원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성회에 성령으로 함께 하였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 최고의 명작, 영원히 기억될 작품을 만들어주셨다.

그렇다. 명작은 최선이 낳는 자식이다. 최선에는 번뇌와 고민이 따르는 법,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니 거기에 예수님의 손길이 더해진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온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은 진(盡)은 진이 빠질 때까지 할 바를 다한다는 뜻이라 생각된다. 매사 이런 마음일 때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음을 알자. 매사 최선을 다하자.

신영서

jesus7857@gmail.com

신은혜

dopa10203@naver.com

실종된 아들을 찾았습니다



왼쪽부터 한수복 전도사, 김반석 장로, 김진휘

할렐루야! 경북 군위읍에는 군위 예수중심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 김반석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반석 장로님은 10여 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10여년 세월을 기도 와 눈물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기도회 참석은 물론이고 새벽 산 기도를 하시는데, 마을 뒷산을 오를 때면 산에 멧돼지들이 많아 미리 준비한 강통을 두드리며 방언기도를 한답니다. 그러면 덩치 큰 멧돼지가 꺾꺾하며 몸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는 오로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복이 많은 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김반석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지요. 김반석 장로님은 교회 일이 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에 부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을 주지 않은 채소를 조금씩 따로 길러서 1주일분씩 철따라 갖은 곡물과 채소를 주방 옆에 갖다 놓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뿐 아니라 동네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반석 장로님은 대답이 감사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오로지 감사로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른을 만나는 나이 적은 이를 만나는 91세이신 장로님은 먼저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만 남의 일을 더 많이 하시는 장로님. 가

난한 과부나 어려운 이웃을 보면 직접 기른 곡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전북노회 주의 종들에게 한해도 빠지지 않고 양파와 곡물로 베푸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는 저는 많이 배우며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드디어 장로님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습니다. 아들 김진휘가 목포 경찰서에 있으니 보호자는 목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큰 아들과 같이 목포경찰서에 가서 12년 만에 아들을 찾아 고향 군위로 돌아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몇 해 고향에서 머물다 가출한 후 10여 년 동안 소식이 없다 나타났지만, 아들 김진휘는 모진 고생 속에 주눅이 들고 행동과 언어가 어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족 품으로 돌아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휘는 부산 소개소를 통해 목포 신안군 다도에 들어갔습니다. 염전에서 일하면 월 300만원의 노임을 준다는 염전 주인의 구두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했지만, 노임 한 톨 받지 못하고 모진 구박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진휘에게 그렇게 고생하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왜 탈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여객선 입출항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도망가도 금방 잡히고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입건하여 염전 주인이 오면 돌려보내기 때문에 탈출해야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추운 겨울에 주인에게 쫓겨나 추위에 떨며 고향생각에 한없이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통화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염전 주인은 일꾼들이 돈이 없으니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혹독하게 억압하거나 때로는 추울 때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추운 겨울밤에 집 주위를 빙빙 돌다 더 이상 추위를 이기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 주인에게 용서를 빌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진휘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올 맘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비만 만들어 돌아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김진휘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니 옛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옛날 아버지는 포악하고 술을 드시면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였는데, 지금 아버지는 온유하시고 자상하시며 목소리마저 조용하시며 부드러워 자신도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장로님이신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말해주면서, 아버지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아버지, 손에가락지를 끼워 주고 동네잔치를 베풀며 살아 돌아온 아들을 자랑한 성경의 아버지처럼, 진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으로 긴 세월 진휘를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아버지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이번 산상집회에 참석한 김진휘 성도는 침례식과 성령세례까지 받고 어땠던 모습이 조금은 밝아진 것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점차 사랑으로 다독여 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옛날 군대에서 제대만 그 늙은 육군병장 김진휘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진휘를 찾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위 예수중심교회 한수복 전도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나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1953년 아프리카 콩고 선교사로 자원한 헬렌 로즈비어의 간증입니다.

헬렌이 선교를 하던 1964년 콩고는 내전 유혈 사태에 빠졌고 헬렌도 체포되어 무려 다섯 달 동안 인정사정없는 폭행과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24명의 선교사 중 4명이 반군에 의해 살해되고 헬렌도 총살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순간에도 나를 믿느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만 죽음에 문턱에선 그녀는 “아니요”라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국 감사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주님의 신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녀는 훗날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기에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 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과 내가 주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는 말씀처럼!

“나는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을 통해 치유 받았다.” 이것은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조개는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 할 수 있는 은혜와 영적 성숙함이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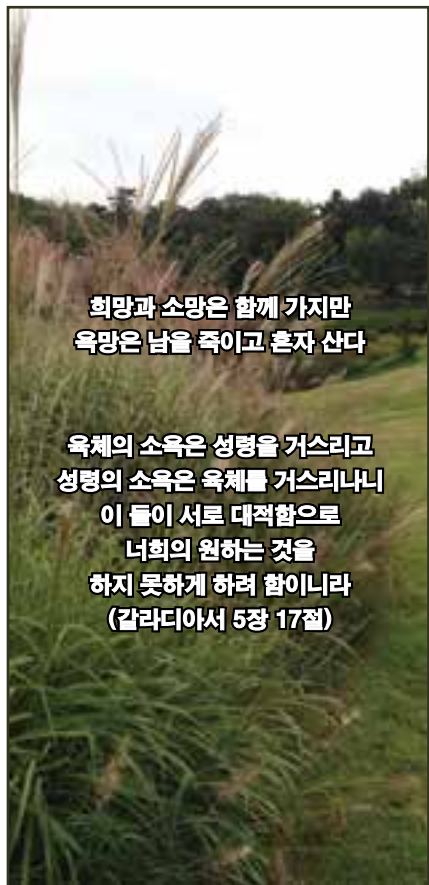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마치고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무대 단상부터 현수막과 애드벌룬, 배너에 이르기까지 멋지지 않은 것이 없었고, 성회 모든 순서 순서마다 감격과 감사, 은혜가 넘쳤으며, 찬송을 부를 때부터 ‘아…, 우리가 이 시청광장에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퍼포먼스마다 역대 최고의 결과물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이초석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순수 복음을 날 것 그대로, 직접적이고 확실한 음성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시청 광장에 운집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올 봄에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성회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크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것이 목사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님을 알기에, 당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성회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더 이상 복음을 듣지도 받지도 않으려는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요, 평화통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진리를 이 악한 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강한 감동이 물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노방전도를 하면서, 성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로 상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고군분투하는 교회를 통하여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기도성회’는 예수중심교회 전 성도들과 이초석 목사님의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붙인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희망과 소망은 함께 가지만
욕망은 남을 죽이고 혼자 산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